
**2024년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2024년 6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 목 차 ||

1. 개 요	-----	1
2. 세부일정	-----	3
3. 방문국가	-----	4
4. 시찰내용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	-----	7
에마르 세일즈 오피스		
바스타키야 알 파히디		
그랜드 수크 데이라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팜 주메이라		
버즈칼리파 전망대, 두바이 음악분수		
두바이몰 실내 스케이트장		
마스다르시티		
카사르 알 와탄, 그랜드 모스크		
두바이 미래의 박물관	-----	47
5. 의원별 출장 후기	-----	76

1 개 요

□ 출장목적

-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바탕으로 중동의 허브로 발전한 두바이의 혁신적인 도시개발정책 현장 시찰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친환경 기반 에너지정책과 도시계획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출장동기 및 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공항에서 청라대교를 통해 서울로 가는 일직선상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청라복합의료타운에 적극적인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및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청라스타필드&돔구장과 연계하여 외부 관광객 유입 및 그로 인한 파생사업 발전을 통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전략 모색.
-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이 화두로 제시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바탕으로 친환경·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구축과 함께 MICE 산업국가로 도약한 두바이의 우수기관 및 시설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및 정책방안 모색.
- 친환경·재생에너지, 도시계획,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출장개요

1. 출 장 국: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2. 출장기간: 2024. 5. 22.(수) ~ 5. 28.(화), 5박 7일간
3. 출장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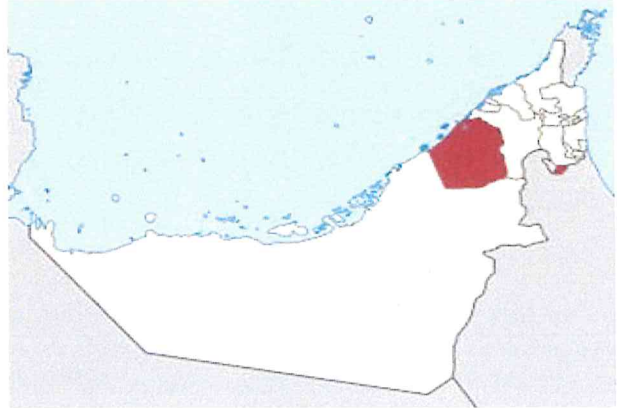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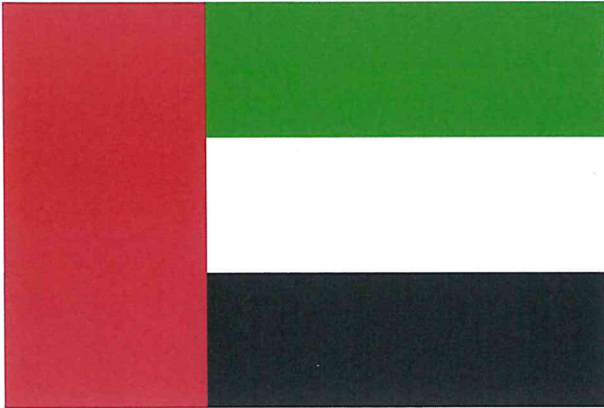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개별업무
1	환경경제 위원회	의원	심우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자 인솔·관리 ■ 친환경·녹색성장, 도시교통 정책 자료 수집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2	복지도시 위원회	의원	박용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보건복지 정책 자료수집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3	복지도시 위원회	의원	김미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보건복지 정책 자료수집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4	자치행정 위원회	의원	홍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 관광활성화 자료수집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5	환경경제 위원회	의원	김원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녹색성장, 도시교통 정책 자료 수집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6	의회 사무국	행정7급	임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단 행정지원 총괄 ■ 방문국(기관) 관련 자료수집 ■ 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7	의회 사무국	행정7급	신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단 행정지원 총괄 ■ 방문국(기관) 관련 자료수집 ■ 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2 세부일정

일 시	업무수행내용	비 고
5. 22.(수)	■ 인천국제공항 출국 및 두바이 도착 (10시간)	
5. 23.(목)	■ 무하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	
	■ 에마르 세일즈 오피스	
	■ 바스타키야 알 파히디	
	■ 수크 데이이라	
5. 24.(금)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 팜 주메이라	
5. 25.(토)	■ 버즈칼리파 전망대, 두바이 음악분수	
	■ 두바이몰 실내 스케이트장	
5. 26.(일)	■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	
	■ 카사르 알 와탄, 그랜드 모스크	
5. 27.(월)	■ 두바이 미래의 박물관	
	■ 두바이 국제공항 출발	
5. 28.(화)	■ 인천국제공항 도착	

3 방문국가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가/행정구역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 토후국
설립/정치체제	1971. 12. 2. / 전제군주제
면 적/인 구	4,114 km ² / 3,478,300명 (두바이) 83,600 km ² / 98,900,000명 (UAE)
국가원수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마툼 (현 아미르)
언 어	아랍어, 비즈니스는 주로 영어 사용
민 족	인도인, 파키스탄인, 에미리트인, 방글라데시인, 등 약 200개 민족
1인당GDP	1,051억 달러, 인당 30,214달러 (두바이) 5,070억 달러, 인당 53,700달러 (UAE)
환 율	3.67AED = 1USD 고정환율
국가형태	토후국의 연합 국가 (아부다비, 두바이, 사르자, 아즈만, 움왈쿠와인, 리스알카이마, 푸자이라) <small>외교, 국방 등은 연방정부에서 관할하고 이 외 사항은 각 에미리트 별로 자치적으로 관할</small>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 연방제

1.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		
가. 방문지 정보	7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8
다. 사진자료	10
2. 에마르 세일즈 오피스		
가. 방문지 정보	12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13
다. 사진자료	14
3. 바스타키야 알 파히디		
가. 방문지 정보	16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19
다. 사진자료	25
4. 그랜드 수크 데이라		
가. 방문지 정보	27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28
다. 사진자료	32
5.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가. 방문지 정보	34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34
다. 사진자료	37
6. 팜 주메이라		
가. 방문지 정보	38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38
다. 사진자료	40
7. 버즈칼리파		
가. 방문지 정보	41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41
다. 사진자료	42
8. 두바이몰 실내 스케이트장		
가. 방문지 정보	43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43
다. 사진자료	45
9.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		

가. 방문지 정보	43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43
다. 사진자료	45
10. 카사르 알 와탄, 그랜드 모스크		
가. 방문지 정보	43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43
다. 사진자료	45
11. 미래의 박물관		
가. 방문지 정보	43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43
다. 사진자료	45

1.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재 에너지 활용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 최대 태양열 발전 시설을 견학하고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하고자 함.

가 방문지 개요

전경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 기관 정보

- 설립: 2020년 11월 (이노베이션 센터 개관일)
- 청정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혁신과 창조성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며 에미리트 인재를 개발하는 동시에 이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층별구성

구 분	시설 정보
1층	출입안내실, 포토존, 기념품 상점
2층	자원 순환체험 시설, 에너지 체험 등
3층	태양광 패널 전시, 솔라파크 전망대

-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두바이에 건설한 거대한 태양광 에너지시설.
- 세계 최대의 단일부지 태양광 열 복합 발전소로 홍보관 ‘솔라이노베이션 센터’에서 태양광 발전소 전경을 감상할 수 있음.
- 약 1330만평 규모의 부지에 약 600만개의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있으며 현재도 설비 공사를 계속 진행중임.
- 이곳의 태양광은 시간당 약 1000MW(메가와트)로 변환해 약 32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약 60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갖추고 있음.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 솔라파크 홍보관에서는 현재 두바이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볼 수 있었으며 태양광 발전과 열융합발전 더 나아가 현재 조성중인 집중형 태양열 발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태양광과 사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 전시관 담당자는 이 곳이 “두바이의 미래와 세계의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뒷받침할 청정 기술 혁신 허브” 라고 말하며 “세계의 모든 기술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설명함. 담당자의 말대로 태양광과 열복합에너지 등 세계적인 기술을 모두 접목시켜 화석에너지 이후를 대비함.
- 태양광 에너지 패널은 자동 청소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두바이의 모래바람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두바이에서 사용이 다 된 패널은 아프리카 등 태양열 패널이 필요한 다른 나라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가짐.
-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탄소중립법이 도입되어 2030년에는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함.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도입해야 함.
- 특히 서구의 경우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여러 유해가스 및 소음 등의 피해를 받고있음. 서구는 지리적 특성 상 바다와도 맞닿

아 있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활용하기에 좋음.

- 특히 여러 문제가 되고있는 매립지 위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여 매립지의 문제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솔라파크에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함께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4단계 프로젝트를 도입중인데 태양열 발전은 태양 전지 대신 거울을 이용해 태양에너지를 중앙에 위치한 타우어에 집중시킨 뒤 이 열로 수증기를 발생시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임. 솔라파크에는 태양광 반사판 한가운데 집중형 태양열 발전 타워를 세움.
- 우리 서구에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더 이상 발전소에 의지하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요 질의응답

1. 솔라파크의 운영 주체는 어디인가. 생산된 에너지는 판매하는가.
 - 솔라파크는 두바이 수력전력청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DEWA)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영기업으로 생산된 에너지는 전부 두바이 전력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두바이 전력의 12% 정도를 솔라파크에서 담당하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면 두바이 전력의 25%까지 이 솔라파크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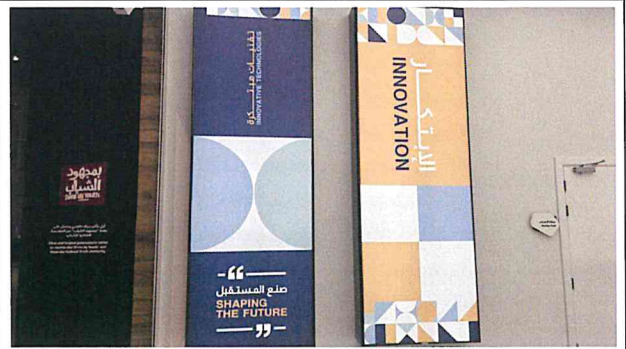
2. 솔라파크에 현재 설치된 패널은 몇 개이며, 이 패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가.
 - 현재 약 600만개의 태양광 패널을 갖추고 있으며 태양광을 시간당 약 1000MW(메가와트)로 변환해 약 32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패널에는 자동 청소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자동 청소로 해결되지 않는 모레나 각종 먼지 등은 사람이 직접 투입되어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에너지 생산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중이다.

3. 솔라파크 한 가운데에 세워진 타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 저 타워는 솔라파크 프로젝트의 4단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건설된 타워로 260m에 달하는 집중형 태양열 발전 타워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타워이며 작동 원리는 7만 개의 반사판에서 모은 열을 타워 안에 저장하게 된다. 이 열

을 이용해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타워의 작동 원리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태양광과 태양열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보고있는 저 넓은 판은 태양광을 모으기 위한 판넬이다. 태양광은 태양의 빛을 받아 에너지를 모은다. 하지만 이 타워는 태양광이 아닌 태양열을 이용한다. 태양의 열기를 이용한다. 거울처럼 생긴 판넬들이 바로 태양열을 모으는 반사판이다. 반사판에서 반사된 열들이 타워에 모이게 된다. 집중된 태양열은 물이 아닌 ‘소금’ 으로 열을 저장하는데 이게 바로 용융염 발전이다. 소금을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녹이는 것이다. 이렇게 용해된 용융염은 열 에너지를 축적하여 해가 진 후에도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는 정기를 발전시켜 오랜시간 발전이 가능하다.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며 생기는 문제점, 솔라셀의 수명이나 기능 악화 등을 고려하여 태양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다 사진자료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 입구



솔라파크 운영 방식 설명



태양광 패널의 작동 원리



태양광 시설 관찰



솔라파크 전경



관계자와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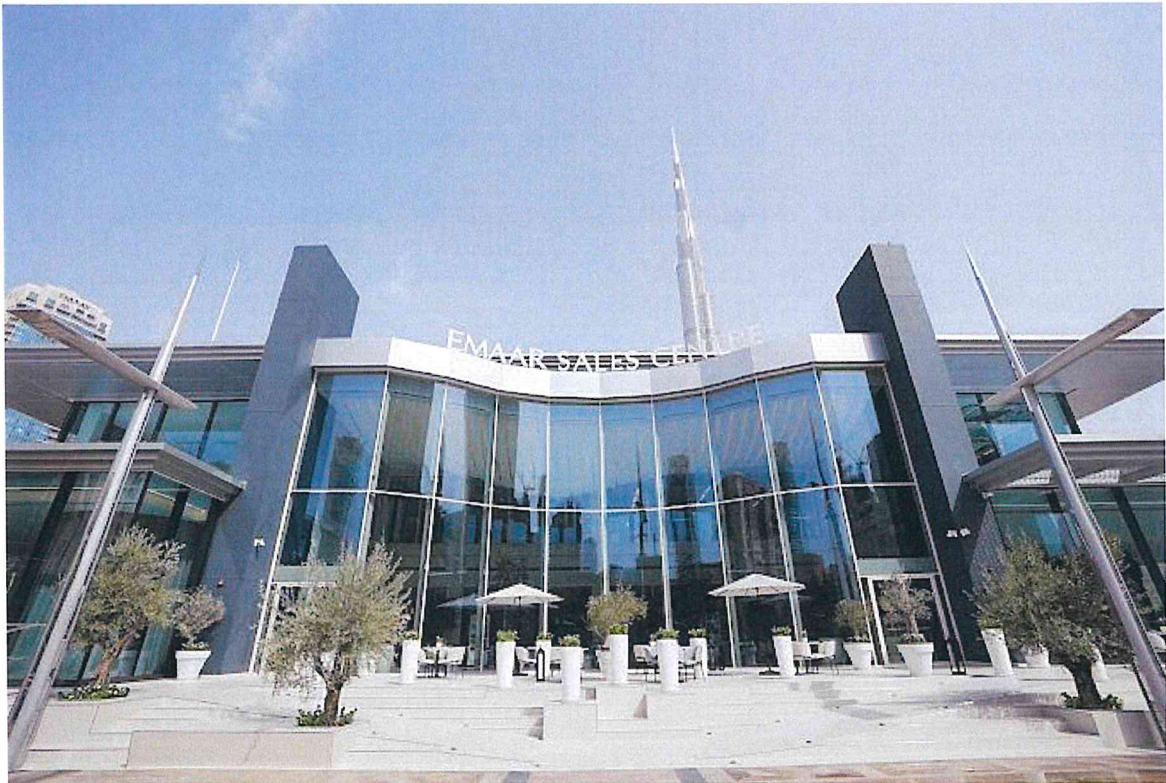
공무국외연수 단체사진

2. 에마르 세일즈 오피스

도심 랜드마크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에마르사를 방문하여 청라시티타워,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등 우리 구 랜드마크 시설 건설 시 주안점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가 방문지 정보

전경



- 에마르사는 두바이에서 운영하는 국영 건설회사로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임. 두바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두바이 시내

와 주변에 현대적이고 럭셔리한 건물들을 건설하여 현재의 두바이를 만드는데 기여함.

- 특히 에마르에서는 특이한 구조로 두바이 관광 대표 명소가 된 버즈 알 아랍, 버즈칼리파를 건설했고 고층 랜드마크 뿐 아니라 상업시설인 두바이몰을 건설함. 이 랜드마크들은 두바이를 관광 명소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음.
- 에마르 세일즈 오피스에서는 이런 에마르사의 역사와 에마르사가 기획하고 있는 두바이의 비전에 대해 들을 수 있음.

다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 서구는 현재 청라시티타워,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등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음. 이런 건축물을 건설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음.
- 랜드마크가 세워지면 단순히 건물로서의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게 함께 변화됨. 특히 에마르사는 버즈칼리파, 버즈 알 아랍, 두바이몰을 한데 묶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 깊었으며 청라에 건축 예정된 스타필드와 돔구장을 이어 하나의 두바이의 건축물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두바이는 법적으로 모든 건물이 같은 모양으로 지을 수 없어 건축 디자인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음. 에마르사에서 건축한 모든 건물도 모두 다른 모양을 띠고 있음. 서구도 도시 계획부터 도시 경관을 해치는 천편일률적인 모양의 건축물이 아닌 다양하고 특색있는 랜드마크를 건설해야 함. 건축물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단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두고 협업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함.
- 서구의 청라와 검단은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임. 이 부지에 앞으로 서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을 세워야 앞으로 관광산업을 비롯한 부동산 투자 유치 등 진정한 국제 도시로써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음.

□ 주요 질의응답

1. 두바이를 둘러보니 건물이 모두 다른 모양이다. 이유가 있나?
 - 두바이는 법적으로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겉모습은 모두 다르 게 건설해야 한다. 여기 아래 디오라마를 봐도 전부 다른 모양이다.
2. 버즈 알 아랍, 버즈칼리파 등의 건축물을 짓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 지금 말한 건축물들은 두바이의 대표적 상징처럼 여겨진다. 사실 두바이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상 석유 매장량은 그리 많지 않다. 두바이가 지금처럼 성공적인 모습을 띄게 된 건 셰이크 모하메드 왕세자 덕분이다. 왕세자는 두바이의 미래가 부동산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두바이는 위치적 이점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 위치적 강점을 살려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만한 랜드마크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 건축물들이 두바이의 상징이 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다른 부동산 사업까지 맞물려 두바이를 부흥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우리 서구도 청라에 국제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국제도시는 아무래도 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힘쓸 수밖에 없다. 두바이는 성공적인 국제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거기에는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가 큰 작용을 했다고 들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제약은 없나?

- 두바이의 지향점은 국제도시다. 두바이에 몇 개국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는가? 200개국을 넘는 사람이 두바이에서 살고 있다.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두바이는 1995년부터 부동산 유치를 본격화했다. 외국인 투자지분을 100%까지 늘려 투자를 완화했고 각종 세금도 없다. 이런 규제 완화가 세계 시장에서 두바이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줬고 지금의 두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 또한, 두바이는 미래를 향하는 도시다. 지금 에마르도 이미 건축한 건축물들 외에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다 사진자료



에마르사의 건축물 모형



에마르사 건축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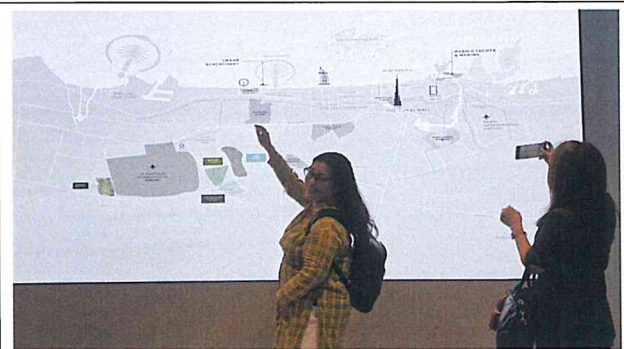
버즈칼리파 건설 비하인드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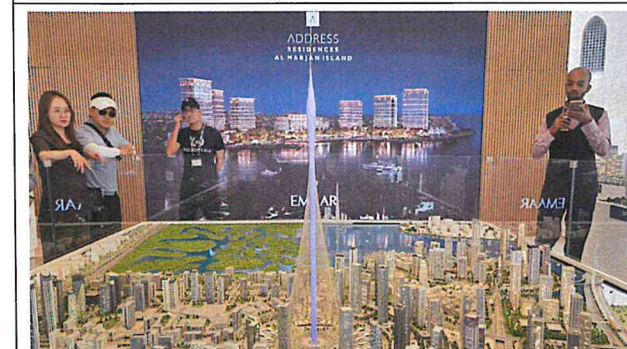
에마르사의 도시 구성 청취



디오라마를 통한 두바이 비전



두바이 향후 청사진



현재까지 에마르사에서 조성한 건축물



버즈칼리파와 버즈알아랍 조형물

3. 바스타키야 알 파히티 & 수크데이이라

역사 유적지의 형태를 살리면서 전통과 현대의 융합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를 개발함. 서구의 녹청자 박물관, 골목형상점가와 연계 및 특화 거리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가 방문지 정보

전경



<바스타키야 알 파히티>

- 페르시아만의 바다가 흐르는 하천 두바이 크릭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고대 무역업을 진행했던 곳. 아랍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어 현대적 고층 빌딩의 두바이가 아닌 전통적인 두바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

- 이런 전통 건축물에 현대적인 시설의 물을 입점시켜 관광객이 즐겨 찾을만한 물건과 디저트 각종 소품 등을 판매함.
- 특히 전통적인 건축구조를 따라 만든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어 관광객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특별한 스타벅스로 이름을 알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수크 데이라>

- 두바이 크릭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시장이 알 파히티이고 맞은편에 수크 데이라가 위치해 있음. 알 파히티에 방문한 사람은 차도를 이용해 수크 데이라로 넘어가거나 배를 타고 두바이 크릭을 건너 갈 수 있음.
- 수크 데이라는 알 파히티와 또 다른 형태의 시장 구조를 띄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임. 수크 데이라의 전통적인 판매 상품은 천, 스파이스, 골드로 도매부터 소매까지 한 지역에서 모두 구매할 수 있음.
- 관광객이나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파히티부터 수크 데이라까지 이어지는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쇼핑할 수 있으며 알 파히티에서는 일반적인 시장 물품을 구매하고 배를 타고 이동해 수크 데이라에서 전문성을 가진 골목들을 방문하여 옷을 구매하거나 향신료, 금 등 일반 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음.

나 주요 시장내용 및 접목방안

- 인천 서구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모두 품은 지역 중 하나임. 특히 구시가지엔 가좌시장, 거북시장 등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존재함. 또한 골목형 상점가를 조성하고 활성화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많은 정책을 운영중임.
- 알 파히티는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독특한 구조를 띄고있음. 새로운 시장을 현대적으로 짓는 것이 아닌 기존에 위치한 전통적인 건물에 이질감이 없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판매하는 물건도 전통적인 물건을 판매하고 있음.
- 수크 데이라는 일부 품목을 특화한 거리가 존재함. 골목마다 특화상품이 다르며 스파이스 골목의 경우 향신료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금 시장에서는 금만 판매함. 의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에서는 1층에서는 소매를, 그 위 건물에서는 도매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전문성을 띄고 있음.
- 단지 시장을 현대화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모양의 시장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챙김으로써 전통적인 것을 보고싶지만 실제로 낙후된 시장을 찾기는 꺼리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명소로 손꼽힘.
- 또한 시장 안에는 유명한 카페와 음식점 등이 함께 입점해 있음.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관광상품을 사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며 주변을 돌아보고 전통 유적지를 마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임.

- 서구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중에 있음. 하지만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타워 건설, 축제 진행, 야시장 개최 등 다른 시장과 별다른 특색이 없는 사업을 위주로 진행해왔음.
- 서구는 검단선사유적지터와 녹청자 발굴지가 아직 남아있음. 검단선사유적지터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녹청자 발굴지는 현재 골프장 한 편에 전시되어 있는 게 전부임. 이런 문화유적지를 눈으로 보고 스쳐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 파히티처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융합된 시장이나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다 사진자료



바스타키야 알 파히티 전경

전통적인 모습을 따서 만든 건축물



전통 시장과 흡사한 현대 시장



알 파히티에서 바라본 수크데이라



수크 데이라 입구



수크 데이라 금 전문 시장



수크데이라와 건너편을 잇는 수상택시



반대편으로 이동 가능한 수상 택시 정류장

4.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2002년 설립된 ‘세계 최초·최고·최대’의 의료복합 시설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를 방문하여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를 육성하기 위한 성공요인과 투자유치 지원책 등을 시찰하고,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해 청라의의료복합타운을 의료관광 명소로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내 의료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가 방문지 정보

전경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기관 정보

○ 설립: 2022년

○ 두바이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에 의해 계획된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는 고품질의 환자 중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목표는 의료 서비스와 치료를 위한 주변 국가의 의료 관광이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의료, 의학, 교육 및 연구, 의약품, 의료장비, 웰니스 및 관련 지원 분야에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헬스케어 시티 운영 정보

구 분	운영 정보
보건의료	120개의 의료시설과 4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외래 의료센터와 진단 실험실 운영
교육및연구	의·치 전문대학 운영 교육, 임상, 실습 및 연구를 통합적으로 제공
투자	자유무역지구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솔루션 제공
규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면허 부여,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운영

□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는 의료관광 특구로 이 지역에서는 의료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 병원뿐 아니라 의과대학, 호텔, 상업 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여 치료를 위해 찾아오는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 헬스케어 시티는 자유무역지대로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용이함.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는 세계 최초로 지어진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역임. 현재 1단계는 모두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인근에 2단계 헬스케어 시티를 건립중에 있음.
- 청라는 서울아산병원과 손잡고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의료 복합타운이 들어올 예정임. 800병상 규모로 2024년 말 착공에 들어가며 서울아산청라병원 외에 카이스트와 하버드의대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임. 또한 창업 교육 시설인 라이트 사이언스 파크도 입점 예정으로 의료복합산업의 연구개발 허브 기능을 수행함.
- 공급부지 260,336m안에 의료시설 뿐 아니라 시니어 클러스터, 메디텔, 업무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포함되며 약 5,000여명의 직접 고용 효과와 약 3조 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됨.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는 최초로 조성된 의료복합타운으로 그 의미가 있으며 청라의료복합타운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보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거점 의료 기관으로 의료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듯이 청라의료복합타운도 공항에서 30분안에 도착 가능한 이점을 살려 아시아 지역의 거점 의료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 특히 인상깊었던 점은 대학병원 하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여러 병원이 헬스케어 시티 안에 있어 원스톱 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으며 한 번의 헬스케어 시티 방문으로 치과, 미용, 기타 중대한 질병 치료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음. 시티 안에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함께 있어서 치료를 위해 먼 곳에서 움직일 필요 없이 근거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음.

□ 주요 질의응답

1.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의 주 이용자는 누구인가? 자국민인가?

-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의 주 이용자는 외국인이다. 걸프연합 37%, 범아랍국가 25%, 유럽 20%, 아시아 18% 정도의 비율로 인근 아랍지역의 방문객이 제일 많다. 두바이는 두바이 국민에게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통 이들은 헬스케어 시티가 아니라 인근 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을 찾기 때문에 자국민의 헬스케어 시티 방문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2. 서구도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앞두고 있다.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를 조성할 때 가장 중요시 한 부분이 있다면 ?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는 전세계에서 제일 처음 조성한 헬스케어 원스톱 시티다. 조성 당시부터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었다. 두바이 자본으로 이 모든 걸 다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힘썼고 별도의 관리 법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의료 분쟁을 전담하는 부

서를 운영중이기도 하다. 헬스케어시티를 조성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환자의 입장에서 모든 편의를 생각한 게 아닐까 싶다. 환자는 다른곳에 숙소를 잡고 병원을 오가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다수의 호텔을 입점시켰으며 기타 편의시설 조성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중시하여 헬스케어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헬스케어시티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의료시설 외에 교육시설을 함께 건립했다. 전문 교육시설에서 헬스케어시티에 계속 근무할 의사를 직접 배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두바이 국내의 수요보다는 외국의 수요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따라서 외자유치도 활발하게 진행하며 헬스케어시티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다 사진자료



의료진 양성을 위한 전문 학교 전경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영 전문학교



헬스케어시티 입구



기념사진



헬스케어시티 전경



헬스케어시티 거리 풍경

5. 팜 주메이라

랜드마크 조성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구 정서진, 아라뱃길 등에 수상공원과 담수면을 활용한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 및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가 방문지 정보

전경



팜 주메이라 기관 정보

○ 설립: 2001년

○ 팜 주메이라는 바다를 매립해 만든 주거 및 관광지다. 나킬社에서 주도적으로 건설했으며 완공시 두바이의 해안선은 총 520km까지 늘어나게 된다. 팜 주메이라는 길게 뻗은 도로와 건물이 야자수 나무를 닮았으며 야자수 나무의 형상 끝마다 고급 주거지를 건설했으며 일자로 길게 뻗은 끝에는 고급 호텔과 상업 시설이 즐비하

다. 관광객은 모노레일을 타고 섬 기슭부터 제일 끝의 아틀란티스 호텔까지 이동할 수 있다. 호텔에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와 수족관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가 혼재되어 있어 팜 주메이라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 서구는 바닷가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매우 적합함. 정서진과 아라뱃길 등을 활용해 매년 카약축제와 수상레포츠 축제를 개최하지만 이렇다 할 랜드마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팜 주메이라는 바다와 접해있는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고급 주거지를 건축했고 끝에는 7성급 호텔이 준비함. 사막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이곳에 오면 각종 해양스포츠를 빠짐없이 즐길 수 있음. 걸프만과 연결된 바다는 관광객들이 꼭 들러 사막의 기적을 느껴보기에 충분함.
- 야자수 앞 줄기는 전부 고급 주택가가 위치해 있음. 이 주택가는 모두 다른 모양을 띄고 있으며 각 집마다 개인 해변을 소유하고 있음. 이 해변에 개인 요트를 정박해두고 이용함. 고급 주택의 소유주는 에미리티보단 각국의 부호들이 더 많은 편. 특히 러시아나 유럽과 지리적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각국의 부호들이 고급 주택을 구매함. 특히 러시아의 겨울은 굉장히 추운편이지만

두바이는 겨울이 성수기로 평균 기온이 15℃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추운 겨울을 피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음.

- 서구도 매립지가 위치해 있음. 하지만 특색없이 땅 늘리기에 급급한 매립을 진행해 특별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공업지역으로 사용하는 실정임. 청라3동 인근 연안을 이용해 로봇타워 등을 건설 예정에 있지만 아직 뚜렷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은 상태임. 바다를 지척에 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많음. 관광과 투자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특색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함. 팜 주메이라의 경우 모든 상업시설을 하나로 연결했으며 세계적 부촌이라는 점이 이곳을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줌. 또한, 해안가를 따라 줄지어 선 요트도 특별함을 더해줌. 서구는 공촌천과 심곡천이 바다와 연결되어있음. 각각의 하천으로 본다면 규모가 작겠지만 바다와 연결지어 거대한 물줄기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과 매력을 갖춘 관광상품으로 변모 가능함.
- 무분별하고 특색없는 랜드마크와 관광지가 아닌 서구만이 갖출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개발해야 하며 발전 지역을 조각이 아닌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여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함.

다 사진자료

	
<p>팜 주메이라 끝 풍경</p>	<p>팜 주메이라와 연결된 여가시설</p>
	
<p>팜 주메이라 전망대 입구</p>	<p>팜 주메이라의 개인 빌라</p>
	
<p>팜 주메이라 전망</p>	<p>팜 주메이라 전망</p>

6. 부르즈칼리파 전망대 / 두바이 음악 분수

지역 랜드마크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주변 고밀도개발 및 쇼핑몰 수익성 구축 성공사례를 연구하여 주변지역 개발 전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변 상권 지원 방안 모색. 두바이 음악분수와 청라 호수공원의 음악분수를 비교해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가 방문지 정보

전경



□ 부르즈칼리파 전망대, 두바이 음악 분수 정보

○ 완 공: 2010년

○ 두바이 신도심 지역에 있는 높이 828m, 164층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다. 에마르社에서 건축했으며 2004년부터 약 5년동안 건물을 올렸다. 이전의 최고층 빌딩은 타이베이 101이며 한국의 최고층 빌딩은 잠실에 위치한 롯데타워다. 부르즈 칼리파 지하는 두바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두바이몰과 연결되어 전망대를 관람하고 내려 온 관광객은 자연스럽게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부르즈칼리파1층 야외에는 두바이 음악 분수가 있다. 이 음악 분수는 전체 길이 75m, 최대분사높이는 500m까지 치솟는다. 음악 분수를 관람하는데는 입장료 등 별도의 요금이 필요하지 않으나 음악분수를 만든 인공 호수를 가로지르는 배를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 부르즈칼리파 정보

○ 두바이 분수 정보

구 분	운영 정보	구 분	운영 정보
높이/지상층	828m / 163층	길이/높이	전체길이 75m/ 최대 500m
완공일	2010년 1월 4일	완공일	2009년 5월
용도	업무시설, 관광, 쇼핑, 호텔	용도	인공호수에 설치된 연출용 분수
면적	344,000m ²	면적	약 12만 m ²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 부르즈칼리파는 두바이의 전성기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모여들었으며 특별한 모양의 호텔 부르즈 알 아랍과 함께 두바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었음. 부르즈칼리파는 민간기업이 아닌 국영기업 에마르社에서 건설했는데 사실 두바이는 민간기업의 건설이 거의 없고 모든 사회자본 건설을 국영기업이 도맡아 하고 있음. 두바이의 거대 건설기업은 에마르社와 나킬社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에마르는 두바이 신시가지의 랜드마크와 고층 건물 등을 건설했으며 나킬은 팜 주메이라로 대표되는 휴양지와 주거지 위주의 건설을 주로 함. 부르즈칼리파 근처의 빌딩에는 대부분 에마르의 마크가 있었음.
- 국영기업의 이점을 살려 랜드마크가 될 빌딩 하나만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미관과 연결성을 놓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함. 특히 부르즈 칼리파는 1층에 두바이 분수와 지하에 두바이몰이 연결되어있어 이 곳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단순히 부르즈칼리파의 명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각광받고있음.
- 특히 유명한 건 부르즈칼리파 1층에 인공호수를 만들고 거기에 음악분수를 설치했다는 점임. 청라도 청라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음악분수를 만들었고 하절기 매주 목금토일, 1일 3회 공연은

을 진행하며 성수기인 6~8월은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8시 30분에 마지막 공연을 진행함. 음악분수의 규모는 가로 120m 물줄기 높이 최대 75m를 자랑함.

- 두바이와 음악분수와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변 환경에 있음. 두바이는 축구장 50개 이상의 면적을 가진 쇼핑몰과 부르즈칼리파가 있어 분수 바로 앞자리가 아니더라도 인근 식당, 카페, 술집 등에서 편하게 먹거리를 즐기며 분수쇼를 볼 수 있음. 하지만 청라 호수공원의 경우 상업시설이 전무해 미리 먹거리 등을 준비해와야만 호수공원의 분수쇼를 즐길 수 있게 됨.
- 청라시티타워는 부르즈칼리파처럼 서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설중에 있음. 높이 450m의 청라시티타워가 완공되면 더 높은 곳에서, 혹은 더 편하게 호수공원 음악분수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특히 시티타워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가까이에서 무료로 음악분수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함.

다 사진자료



부르즈칼리파 전망대



에마르사의 건물이 한눈에 보이는 풍경



부르즈칼리파 기념사진



음악분수대의 낮 풍경



음악분수대의 밤 풍경



음악분수대 가동 사진

7. 두바이몰 실내 스케이트장

세계 최대의 실내 스케이트장을 돌아보고 스케이트장 이전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며 추후 스케이트장과 연계한 상업시설의 구성과 유지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함.

가 방문지 정보

전경



두바이몰 실내 스케이트장

○ 두바이에서 빙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스케이트장. 국제 표준 크기를 따르는 약 5,000미터의 빙상장이다. 두바이 몰과 연결되어 접근성이 상당히 높으며 국제 규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을 즐기는 사람은 단순 오락뿐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빙상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다. 전문 코칭스텝이 빙상장에 상주하

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 서구는 현재 스케이트장 이전 유치에 힘쓰고 있음. 이번 실내 스케이트장 방문은 추후 스케이트장이 유치된다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방문객의 접근은 어떤 식으로 늘려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노원구 공릉동에 있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1971년 체육인 양성을 위해 만들었으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원형 복원을 위해 현재 대체지를 찾고 있음.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시설이자 주민의 생활체육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신규 스케이트장은 총 2천억 원을 지원해 부지 5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임.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과 근접한 지리점 이점이 있으며 공항철도와 서울 7호선 등 접근성이 좋아 타 부지에 비해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 다만, 스케이트장 이전 부지 인근에 인프라가 함께 개발중이므로 개발후의 모습은 미래에 확인할 수 있음.
- 두바이몰 아이스링크장은 단순한 아이스링크장이 아닌 복합 문화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음. 두바이몰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기타 편의시설도 모두 인근에 갖추고 있음. 서구 스케이

트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인근에 다양한 복합 시설이 자리잡을 예정이다. 스타필드나 돔구장, 하나금융타운, 청라시티타워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 유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함. 아이스링크장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나 활용하여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량에 따름. 두바이몰 아이스링크장은 전체 대관을 통해 생일파티 등을 진행하기도 함.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인 면모를 익혀 추후 아이스링크장 연계 관광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함.

다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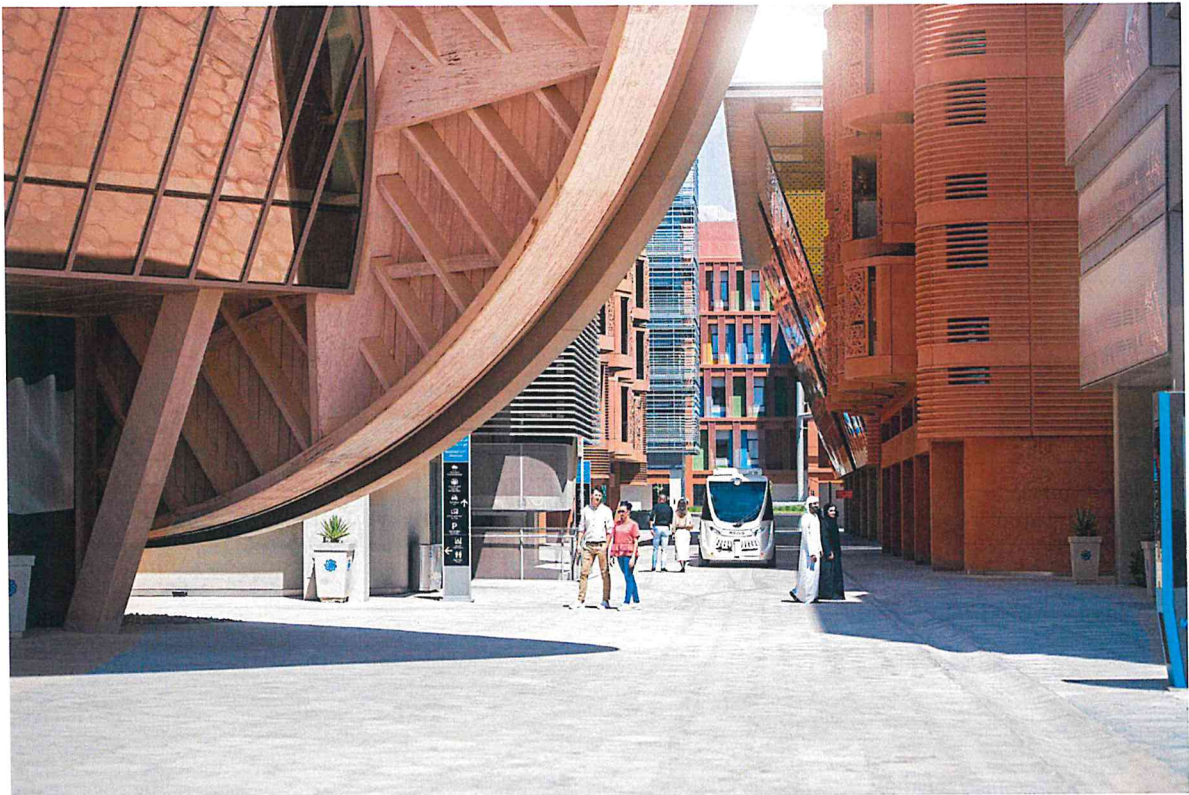
<p>두바이 실내 아이스링크장 어린이 교실</p>	<p>두바이 실내 아이스 링크장</p>
<p>서구 아이스링크장 유치를 위한 사진</p>	<p>단체사진</p>

8.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

마스다르시티의 에너지 극대화 전략 및 친환경 도시정책 사례를 연구하여, 소각장 폐쇄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구 차원의 폐기물 정책에 대해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가 방문지 정보

전경



□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 기관 정보

○ 설립: 2006년 시작

○ 탄소제로(Net-zero)를 위해 건설된 도시. 화석연료 이후의 도시를 생각하며 아부다비에서 기획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이며 마스다르시티에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고자 목표를 세웠으며 도시의 모든 폐기물은 100%재활용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만들었다. 친환경 혁신을 목표로 세계적인 기관들과 협력하였으며 지역적으로도 아부다비 중심부와 그리 멀지 않아 교통 접근성이 좋다. 또한, 건물은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면서도 아부다비 전통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 바람길을 만드는 등 문화적 중요성도 놓치지 않았다. 마스다르시티는 당초 완공 예정일에서 늦춰져 2030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마스다르시티 정보

구 분	운영 정보
설립년도	2006년 설립 시작. 최종 완공 목표 2030년
면적	6제곱 킬로미터, 건설 비용 180달러
인구	4만명 예상
특징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투자회사가 신재생 에너지 사용, 전기차만 운용하는 세계 최초의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친환경 프로젝트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 마스다르시티는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친환경 녹색 도시를 표방하며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음. 건물의 독특한 모양은 아랍의 전통 건축 양식을 따와서 만들었는데 들어오는 바람은 가두고 햇빛과 열은 피할 수 있도록 지어졌음. 모든 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기 위해 만든 도시답게 선진 친환경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 모든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1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함.
- 마스다르시티의 지속 가능성은 일상생활과 연결된 모든 에너지 자원을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크게 7가지를 중점적으로 설계했음. 먼저 열에너지인데 일반 도시는 건물, 포장도로, 제한된 녹지 공간의 집중으로 인한 열섬효과로 인해 주변 지역보다 더 뜨거운 경우가 생김. 이는 에어컨과 같은 냉각 시스템의 필요성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게 됨. 마스다르시티는 이런 열섬효과를 막기 위해 녹지 공간을 늘리고 친환경 건물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적용함. 두 번째는 대기오염임. 도시 지역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산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시달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십분 활용하여 도시 생활을 영위함.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

치하고 건물마다 바람이 지나다니는 길을 만들어 열이 머무르지 않도록 함.

- 폐기물과 수도 또한 도시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탄소 발생 요인임. 특히 서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위치해 있어 여러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음.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지를 지척에 두고도 곧 쓰레기 매립지가 종료된다는 희망에 살아왔으나 매립지 종료를 두고 이견만 있을 뿐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답보중임. 도시의 쓰레기는 늘어나고 쓰레기 매립지는 과포화 상태이나 아무도 쓰레기 매립지를 옆에 두고싶어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마스다르 시티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서구, 나아가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됨. 마스다르시티의 생활 폐기물은 100% 재활용 하고, 순환 또는 에너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폐기물 수거 분류 시스템을 통해 50%는 재활용, 33%는 소각하여 에너지로 이용, 17%는 퇴비로 이용하도록 함. 우리나라는 폐기물 억제 정책을 시행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 및 재활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등의 폐기물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상황임. 마스다르시티의 선도적인 탄소제로화 실험의 결과물에 따라 서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쓰레기 감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서구는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지고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미래를 향하는 도시임. 미래 도시에는 랜드마크가 될 빌딩도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도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다 사진자료



마스다르시티 입구



에너지 효율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물



마스다르시티 설명관



바람 순환을 위한 건축물



마스다르시티 입구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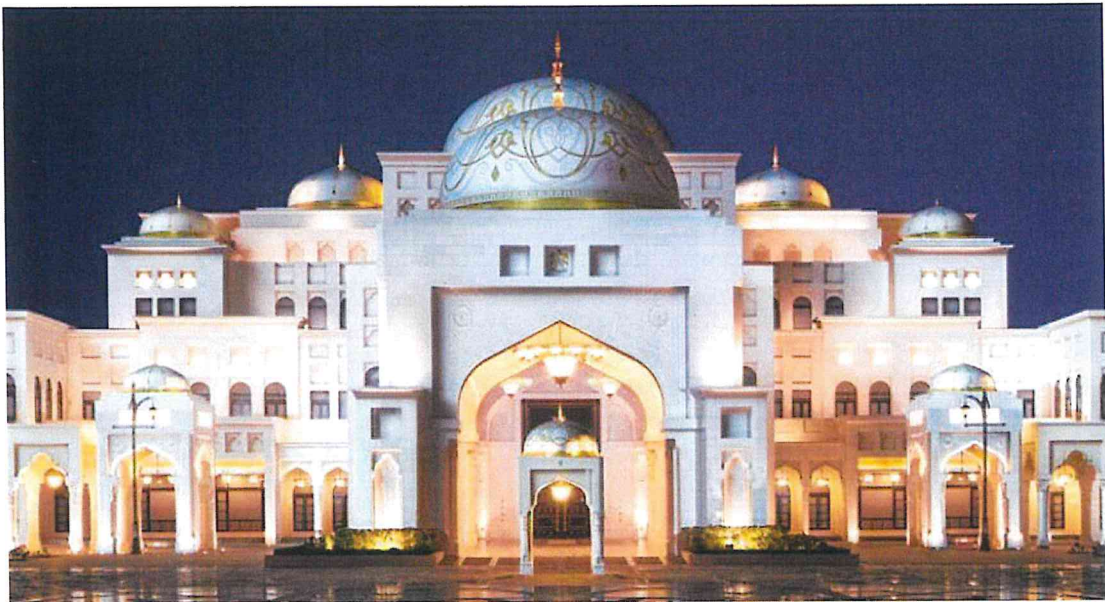
단체사진

9. 카사르 알 와탄, 그랜드 모스크

카사르 알 와탄(아랍에미리트 대통령궁)과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하고 서구 검단선사문화유적지, 녹청자 발굴터를 어떻게 변화시켜 서구민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가 방문지 정보

전경



카사르 알 와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궁) 기관 정보

○ 완 공: 2017년

○ 카사르 알 와탄은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궁으로 2017년 완공되었다. 완공 초기에는 민간인 개방이 없었으나 2019년에 아부다비 왕세자인 오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히얀이 궁전을 대중에게 개방

하기로 했다. 민간 개방 후에도 외국 국가 지도자들을 접견하고 만찬회를 여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궁은 아름다운 외관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 외관에는 백색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궁전형 모양을 자랑한다. 여기에 350,000개의 크리스탈 조각으로 된 샹들리에와 열과 희을 맞춰 조각된 내부 장식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위엄을 나타내며 각 국 정상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 기관 정보



○ 완 공: 2007년

○ 2004년 사망한 초대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을 기리는 묘소가 위치해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모스크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종합 공간을 지향하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복장만 갖추면 모스크에 방문해 공식 투어에 참여하거나 관광할 수 있다. 이 모스크는 약 10m의 높은 땅에 지어졌으며, 총 면적은 550,000제곱미터가 넘고 약 55,000명의 예배자를 수용할 수 있다. 모스크의 완공까지 11년이 걸렸으며 이탈리아, 독일, 모로코, 인도, 터키,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장인과 기술자, 재료를 사용하여 세계를 하나로 하는 디자인과 건설이 이루어졌다. 3천명 이상의 근로자와 38개의 회사가 참여한 다국적 건축물이 되었다.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 대통령궁과 모스크는 비교적 최근 지어진 문화유적지임. 아부다비는 전통적인 문화 관광유산이 적기 때문에 대통령과 모스크를 개방해 문화적, 종교적 시설을 보고싶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음. 특히 대통령궁은 관광객에게 개방된 접견실 외에 실제로 대통령과 관료들이 정무를 보는 곳으로 특별한 느낌을 주게 됨. 특히 대통령궁 입구에는 세계 정상에게 선물을 받은 각종 기념품을 전시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선물한 기념품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런 배치를 통해 이국적인 모습뿐 아니라 정상이 방문했던 곳을 직접 방문한다는 특별한 경험도 하게 됨. 또한, 내부는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게 대칭적인 문양의 타일로 장식해뒀는데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만든 이 타일은

포토스팟이 되어 관광객이라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처럼 여겨짐. 놀라운 점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전통 의상인 아바야를 입고 전문 기념사진을 찍거나 솜뭉을 촬영하는 중국인이 많았다는 점임.

- 서구는 공항을 인근에 두고 있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 가능한 지역임. 하지만 특색있는 관광지가 부족해 현재는 서울로 나가기 위해 스쳐가는 곳에 불과함. 서구에 있는 검단 선사유적지나 녹청자 박물관 출토지 등은 외국인에게는 매우 생경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관리가 부족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골프장 한 칸에 방치되어있음. 대통령궁과 모스크를 보면 문화에 투자한다는 것이 꼭 K컬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는 직접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경험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아부다비는 전통적 관광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문화를 부각시켜 마치 전통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음. 이런 점을 배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성을 살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준다면 원도심이나 외면받고 있는 서구의 문화유산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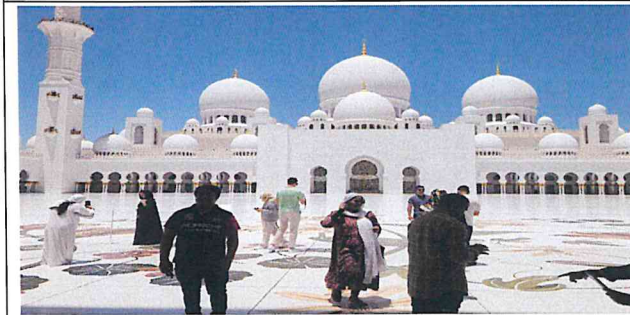
다 사진자료



그랜드 모스크 전경



그랜드 모스크 입구



모스크 안에서 바라본 건물



모스크 안 예배당



왕궁에서 바라본 아부다비 시티



왕궁 접견실로 가는 입구



왕궁 내부 도서관



왕궁 내부 건축물

10. 두바이 미래의 박물관

서구는 2025년 검단신도시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음. 검단신도시 박물관은 발굴 유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전시가 주요 목적이지만 신도시의 문화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므로, 서구의 비전과 미래의 문화를 대표하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인천 서북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함.

가 방문지 정보

전경



□ 두바이 미래의 박물관 기관 정보

○ 완 공: 2022년

○ 2022년 2월 개관한 두바이 미래박물관은 두바이 랜드마크 중 가장 최근 개관한 박물관이다. 독특한 건물로 외관부터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건물 외관과 내부에 기둥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건물을 설계 건축했다. 이렇게 특별하고 아름답게 지은 건물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4개의 박물관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건물 외관의 독특한 무늬는 아랍어로 쓰여있는데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왕이 쓴 시를 캘리 그래피로 새겼다. 문구는 ‘미래는 상상하고,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의 것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다. 미래박물관은 박물관 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존의 박물관과는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비전을 가진 예술가들이 참여한 실감나는 체험 공간은 관람객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잠시나마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주요 시찰내용 및 접목방안

- 두바이 미래 박물관은 티켓부터 독특하게 되어있음. 일반적인 티켓이 아닌 발권과 동시에 팔찌를 채워주게 됨. 이 팔찌가 곳곳에서 시설을 태그하고 인터랙티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 박물관에 입장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꼭 타임머신처럼 꾸며져 있으며 안내하는 직원이 2071년의 두바이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말함. 그리고 탑승 효과와 함께 2071년의 두바이에 도착하는 컨셉임. 두바이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가 아님.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새로 만들어진 것들임.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떠올린다면 당연히 과거부터 지나온 가치가 높은 것을 떠올리게 됨. 두바이 미래 박물관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버리기 좋은 곳이었음.
- 2071년의 미래 모습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한 층 씩 이동하며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OSS희망, 치유 연구소, 알와하, 미래의 영웅들을 볼 수 있음. OSS희망은 우주 정거장을 테마로 한 전시로 2071년 우주 정거장에 도킹해 주변을 둘러보고 착용한 팔찌로 직접 체험을 하며 내가 우주선의 일원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음. 또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관람객의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에 사진을 합성해주는데 이런 활

등을 통해 생물학자가 되어보거나 우주정비사가 되어보는 등 미래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음. 치유 연구소는 열대우림 생태계를 디지털로 재연한 곳인데 시각적 효과 뿐 아니라 청각 효과까지 더해 열대우림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줌. 이런 전시 방식은 단순히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에 찬 미래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게 해줬음. 알 와하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음. 이 곳은 미래의 치유 프로그램을 접한다는 컨셉이었는데 과학기술이 아닌 핑빙 중심의 환경 속에서 사색을 통해 현대 과학 기술과 거리를 두고 자연 상태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점이 신기했음. 체험하는 모든 곳은 어두운 조도로 운영되며 관람객은 누워서 사색하거나 앉아서 집중하는 등 앞에서 지나온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됨. 이런 시간을 통해 진정한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지 되새겨 볼 수 있음. 미래의 영웅들은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임. 아이들은 놀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며 자신의 주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 인천 서구에는 공립 박물관인 녹청자 박물관이 있음. 얼마 전 특집 기사에서는 인천에 있는 공립 박물관 실태를 조사하고 운영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었음. 공립 박물관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유물을 구입하기가 힘들고 늘 똑같은 유물은 결국 관람객의 발길을 끌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어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관리 부실의 박물관이 되고 만다는 요점이었음. 미래박물관을 돌아보며 녹청자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게 됐음. 녹청자는 고급 토기인 청자나 백자와는 다르게 당시 서민이 주로 사용했던 토기류임. 미래 박물관이 미래로 여행하는 타임머신을 탔다면 녹청자 박물관은 녹청자를 사용하던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해 그때의 생활상을 엿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관람객은 더 이상 옛날처럼 유물을 눈으로 보고 스쳐 지나가는 관람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 관람법에 익숙해져 있음. 하지만 녹청자 박물관은 별도로 추가금을 내고 신청해야 하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외에 어떤 체험이나 참여도 없음. 물론 미래박물관은 막대한 예산과 과학기술을 들여 만들어낸 세계적인 박물관 중 하나이고 공립 박물관과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미리 한계를 정해버린다면 거기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음. 기둥이 없는 건축, 글자가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건축, 유물이 하나도 없는 박물관. 상상만 한다면 그것이 어떤것이든 이루어 낼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음에도 늘 해오던 방식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려 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됨.

다 사진자료



2300년 우주로 떠나는 타임머신



타임머신을 통해 우주로 향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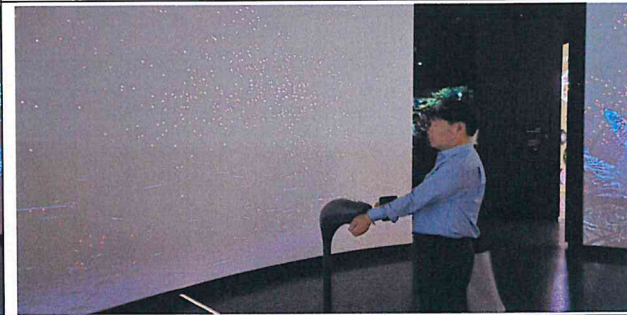
미래 우주의 모습



미래 종자 박물관



자연과 하나되는 미래의 두바이



체험 팔찌를 통해 개별 체험 가능



미래 명상을 통한 치유법 체험



단체 사진

5 의원별 출장 후기

□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심우창 의원

중동의 허브 도시로 발전한 두바이의 혁신적인 도시개발정책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반 에너지정책, 그리고 도시 관광자원 개발정책을 연구하고 벤치 하기 위한, 국외 공무 비교 시찰 의정 보고

1.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청라 소각장 이전 폐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과. 친환경 재생 에너지정책

인천 서구는 청라 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SK인천석유화학과 복합 화력발전소 4곳이 위치 해 있으며 이들이 배출하는 환경 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오염, 주민건강위협 등 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서구의회 선진견학 공무 연수단은 두바이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기관)와 마스다르시티(기관)의 에너지 극대화 전략 및 친환경 도시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두바이의 이 두 기관은 도시의 모든 폐기물을 100% 재활용하며 순환 또는 에너지 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 차. 수소 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용하는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도시로 거듭 발전되어 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매립지를 보유하고 4천만의 수도권 전력을 책임지는 발전

소가 있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바이의 환경정책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태양열, 햇빛, 물, 지열, 바람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사용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활용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태양열 발전 시설을 갖고 있다. 우리도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 활용방안으로 탄소 중립 일류도시로 성장할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폐기물의 재활용과 매립환경에 있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본다. 청라소각장 폐쇄와 수도권매립지종료는 주민들과의 약속한 정책이다. (4개 기관 환경부, 매립공사, 경기도, 인천시) 4자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된 25년 매립종료 정책은 꼭! 지켜져야 할 약속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

또한 소각장 폐쇄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구의회 차원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연구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청라 복합의료타운과 지역 랜드마크를 연계해서 세계적 의료관광 허브 도시로의 육성정책

청라복합의료타운은 종합병원과 의료, 바이오 관련 (산업·학술·연구)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의료사업으로 서울아산병원 외 카이스트와 하버드의대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고 창업 교육시설인 라이트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와 의료 복합산업의 연구개발(R&D)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

또한 아산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으로 손꼽혀 해외환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구의회 차원에서 도시 의료관광 허브 도시로의 육성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의정 연수단은 2002년 설립된 ‘세계 최초·최고·최대’의 의료 복합 시설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기관)를 방문하여,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를 육성하기 위한 성공 요인과 투자유치 지원책 등을 시찰하고,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해 청라의료복합타운을 의료관광 명소로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내 의료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EMMAR SALES OFFICE(부동산 개발 건설회사)를 기관 방문하였다. 두바이 크릭하버, 부르즈할리파 도심 랜드마크를 건립한 대형 건설 회사이다.

인천 서구의 랜드마크인 아라뱃길, 녹청자박물관, 청라호수공원, 아라센트럴파크, 그리고 새로 건립될 청라 시티타워, 검단 넥스트 콤플렉스 등 우리의 자산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기업이 3일에 한 층씩 올리는 최단공기 수행으로 세계 이목을 받은 전 세계 최고층 (800M) 타워 버즈칼리파를 벤치 하여 청라국제도시에 완공 예정인 청라 타워와 스타필드 & 돔구장, 코스트코 등을 활용한 서구만의 칼라로 문화와 체육, 관광산업을 통한 복합 문화 발전을 토대로 성공적인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어내야 한다.

주변을 중심 상권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고밀도개발 및 쇼핑몰 유치 등 수익성 구축 성공사례를 연구하여 주변 지역 개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변 상권 지원방안 정책으로 청라의료복합타운을 랜드마크하여 이와 연계하는 윈윈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원도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적이고 성공적인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
아랍 에미레이트 대통령 관저이자 아브다비 국왕 궁전을 2019년 아부다비 국왕이 재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방하였다. 지금도 외교 업무를 이곳에서 본다. 우리 서구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좌동, 석남동 등 원도심의 지역별 상황에 맞는 랜드마크를 활용한 다양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롤.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태양광 발전기들과 해수 온도 제어 시스템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루브르 아부다시의 혁신 기술 적용사례를 연구하여, 원도심 재생 사업을 포함한 관내 시설 건축 및 관리에 태양광, 지열, 풍력 시스템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1950년 문을 연 그랜드 수크 데이라 전통시장을 현대화로 재개발해서 지역 상권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었다는 것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곳 전통시장은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220개의 유서 깊은 옛날 건축물들이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이다.

우리 인천 서구에도 전통이 있다. 정서진중앙시장, 강남시장, 신거북시장, 가좌시장이 있으나 각 시장만의 고유의 특색이 없고 시설이 낙후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등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그랜드 수크 데이라 재래시장의 성공적 재개발사업 사례를 분석 벤치 하여 서구 전통시장 환경개선 재개발사업을 인근 지역 골목형 상점가와 연계하고 특화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해안선을 안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수 공간 확보 및 해양 스포츠, 레저 관광산업 개발정책

지난달 28~29일, 양일간에 걸쳐 방한한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경제계가 들썩였다. 동반자 관계의 격상과 원전, 방산, 엔터, 친환경, 관세철폐, 경제협력(CEPA 체결)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번 구의회 공무 비교 출장으로 아랍에미리트의 허브 도시인 두바이를 시찰하고 왔기에 색다른 기분이 든다. UAE는 열사의 나라 석유 산출국의 모습에서 어느 샌가 중동의 신흥 경제 허브 도시로 달라져 있었다. 나라의 최대 약점이었던 자연환경을 오히려 관광, 물류의 중심국가로 변모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두바이에 도착하니, 바닷물을 끌어오는 인공 운하 옆으로 고층 빌딩 숲과 주거단지와 자연 친화적인 공원 녹지지역으로 개발한 해안, 인공 수로를 끼고 발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편의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다.

특히 친수 관광측면에서의 변화는 놀라울 지경이다. 도시의 발전상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 친수공간에 화려함과 경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분수 쇼, 여행에서 빠뜨릴 수 없는 쇼핑을 위해 축구장 200여개를 합친 것만큼의 규모를 자랑하는 두바이 몰, 도시를 관통하는 친수공간에 들어선 편의시설, 지역 정체성을 보여주는 골드 수크 전통시장 등 관광객으로 붐비는 활력 있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 인천 서구도 긴 해안선과 수변공간을 갖고 있다. 다만 개성 있는 높은 아파트나 건물들이 많이 있어 낮이든 밤이든 배경으로 찍는 관광객이 많은 두바이 마리나 위크와 달리, 주변에 별다른 관광 킬 포인트가 없는 정서진과 아라 뱃길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곳은 대자연 아니면 아름답고 황홀감을 주는 사람 사는 공간으로 나뉜다. 그 중간의 애매한 지점은 정주공간으로 이용될 순 있어도 관광명소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이 아라 뱃길과 정서진의 현실이다.

경인 아라 뱃길 조성사업은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이었지만, 물류 기능은 실패로 확인되었고 그나마 굴포천 홍수방지 효과에 더불어 소수의 이용객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가끔 인근 주민이 나와 휴식을 취할 뿐이다. 강을 두고 아무것도 없는 맞은편을 보고 커피 한 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야경일 때는 어둠까지 깔려 적막하기만 하다. 약간의 불빛과 도로 조명만으로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없다. 단발적인 문화레저 행사 또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더군다나 또 하나의 그린벨트라 불리우는 아라 뱃길은 양 옆으로 철도 및 도로망이 발달해 있어 편의시설물을 원하는 대로 세울 공간이 부족할뿐더러 경관보호를 위해서라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더 악조건의 자연환경을 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친환경 미래 도시로 170KM 길이의 '네옴' 시티를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을 들여 지하로 파 들어가 긴 라인을 만들어 정주 및 편의시설을 갖춘 중동 제1의 관광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서구의 경인 아라 뱃길은 이미 라인이 완성되어 있으며 자연환경마저 우호적이다. 새로운 친수공간으로의 변화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후의 계획과 과정, 즉 제대로 된 친수공간을 만들어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역 명소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우리 서구민의 노력과 국가의 지원에 달려있다. 그 안에서 서구의회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을 찾을 것이며 하나씩 준비할 것이다.

□ 복지도시 위원회 박용갑 의원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바탕으로 중동의 허브로 발전한 두바이의 혁신적인 도시개발정책 및 현장 시찰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친환경 기반 에너지정책과 도시계획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도착해서 다양한 설명을 듣던 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버즈칼리퍼 빌딩, 팜 주메이라의 특급 호텔 등 여러 건설 업체가 시공을 하였고 대한민국 위상을 많이 드높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 두바이는 모스크, 왕궁, 두바이몰 스케이트장, 에미리트몰 스키장이 쇼핑몰 안에 위치해있고 높은 빌딩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 두바이는 막상 가서 보니 날씨는 덥지만 이런 곳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유가 많이 나는 나라를 생각했는데 수도인 아부다비는 원유가 많지만 우리나라 부산과 비슷한 두바이는 무역센타를 비롯한 전시회 쇼핑 천국으로 아랍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솔라파크에서 친환경에너지의 태양광발전을 보았는데 엄청 큰 시설이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거나 용량이 적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발암물질인데. 그런 것은 아직 잘 나오질 않지만 수지 타산이 안

맞는것은 아프리카로 보낸다고 하네요. 태양광 모듈이 발암물질인데 처리를 다른데로 이전한다니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도 전국 곳곳에 태양광발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수명을 다한 것은 친환경 쪽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전의 돋보기 원리와 비슷한 메탈 미러 발전이 있는데 거울을 사방에 놓고 가운데 메탈 기둥을 설치해 하나로 합쳐 발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것을 잘 이용하면 좋은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박물관에서는 미래의 차, 자전거, 개인 비행기, 미래의 헬스케어 등이 전시되었는데 이것또한 가능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풍력을 지금과 같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풍력 발전을 결합하면 면적도 적고 에너지는 많이 생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이란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데 더운 나라 두바이에서 두바이 몰에 이런 역발상을 생각하여 스케이트장과 볼거리와 쇼핑이 어우러지는 것, 같은 디자인의 건물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주정부, 독특한 건축 제일 높은 빌딩, 바다를 메워 대지를 만든 팜 주메이라 등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은 꼭 봐야 할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다와 아라뱃길이 있는 서구는 인천·김포 공항과 대도시가 가깝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검단신 도시는 박물관이 계획되어 있어 미래도시 박물관을 겸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혼합된 박물관을 만들고, 청라는 시티타워를 비롯한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무역센터, 쇼핑몰, 친환경 매립지를 이용해서 본 목적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서구는 두바이의 무역센터 박람회, 전시회, 쇼핑몰, 미래 박물관 등 본 목적을 이용하고 아브라 수상택시, 팜 주메이라 모노레일, 더하여 관광 상품화 시켰습니다. 중동의 허브처럼 우리 서구도 대한민국의 허브 세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서구는 미래를 향하는 자치구다. 인천에서 순인구 유입이 가장 많으며 현재 63만 명을 돌파해 전국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중이다. 청라를 시작으로 신도시를 계획했으며 현재는 검단 신도시의 입주가 한창이다. 단순히 주거지만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청라시티타워, 검단 박물관 등 앞으로 새롭게 랜드마크가 될 건축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에 빠져서는 안 될 사안이 있다. 바로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다. 단순히 발전을 바라고 바빠 움직이던 시대에서 지나와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천천히 걸음을 내딛는 중이다. 랜드마크와 지속가능한 미래. 어쩌면 매우 상반된 소리로 들릴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접목하여 성공적인 미래 도시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도시가 있다. 바로 두바이다. 서구의 청사진은 두바이에 있기 때문에 두바이에 공무 국외연수를 가게 되었다.

두바이를 가기 전 상상하던 두바이의 모습은 오일머니로 대표되는 매립자원, 그리고 높은 건물 이었다. 하지만 실제 두바이의 모습은 상상하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 실제 두바이는 석유 매장량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높은 건물을 지을만한 자원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 답은 규제 완화와 부동산 정책이었다. 두바이는 땅 밑이 아닌 땅 위를 바라봤다. 드넓은 사막 위에 모두가 한 번쯤 와보고 싶어하는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각종 규제를 줄여 전 세계에서 투자를 받았고 전세계의 기술을 모두 쏟아부었다.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짓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모두가 이 건물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전세계의 잉여자금이 두바이의 해안가로 몰렸고 이는 특별한 해안 풍경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 배우게 된 점은 이 지점이 아니었다. 두바이는 높은 건물, 화려한 풍경만을 조성하는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했다. 곧 고갈될 자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 가능한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해 약 10%이상의 에너지를 태양광에서 가져왔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해 소금을 용해하여 열을 만들고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안해냈다. 솔라파크와 마스다르시티를 돌아보며 높은 건축물이 아니라 이 곳이 진정한 미래의 모습이라고 느꼈다.

서구와 두바이는 닮은점이 많은 도시다. 땅 위에 미래를 그린다는 점이 그렇다. 바다와 맞닿은 지형적 위치와 공항과 가까운 위치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이 그렇다. 서구의 많은 것이 달라졌고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변화의 시점에 두바이에서 배운 것을 접목한다면 더 나은 미래로 향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복지도시 위원회의 의원으로 헬스케어 시티와 마스다르시티에서 배운 것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배운 점을 서구에 접목하여 구민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다.

□ 환경경제 위원회 김원진 의원

인구 63만의 인천 서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3곳 중 하나인 청라 국제도시가 있다. 면적 약 5,395천평 위에 R&D, 첨단산업, 금융, 유통의 중심으로 계획되었고,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인구는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11만 5천명이 거주중이다.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 이번 두바이와 아부다비 방문을 통하여 청라국제도시가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에 맞는 투자유치를 확보하고, 현재 유치는 완료되었으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사업시행 사례를 비교하며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하였다. 또한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서구의 환경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두바이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 동서양이 만나는 독보적인 비즈니스 허브 두바이

페르시아만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의 7개의 토후국 중 하나로, 아부다비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토후국이며 무역, 물류, 관광, 금융 분야의 세계 5대 글로벌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두바이에는 30여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며 첨단 기술 스타트업부터 해외 유수의 기업들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각종 규제나 세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두바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 세계적인 수준

의 기반시설, 기업 친화적 생태계 구축으로 막대한 해외자본의 유치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영종, 청라 중 23년 말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인 FDI 유치실적이 가장 낮은 곳은 청라국제도시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9년의 시간동안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총 FDI는 약 14,890백만달러로 이 중 단 5.6%만이 청라에 투자되었다. 십수년째 난항인 청라시티타워 건립과, 청라국제금융단지가 관광복합, 상업 중심으로 변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 최고층 빌딩인 버즈 칼리파는 828m의 높이로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건설부문 시공사로 참여하여 3일에 1층씩 올리는 최단 공기 수행으로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은 사업이다. 도심의 랜드마크로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 에마르사는 정부 지분이 40%에 달하는 UAE의 최대 국영 부동산개발 업체이며, 주로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한다. 청라시티타워 역시 LH와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유지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져야 서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친환경 랜드마크 건축물로 청라시티타워가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청라국제금융단지도 마찬가지이다. LH에서 2015년 사업공모와 체결 이후 주상복합단지, 관광시설, 상업시설들이 추진된다고 하고 있지만, 거주시설 중심의 개발은 또 하나의 베드타운을 형성하게 할 뿐이다. 인구의 유동성과 다양한

기업이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민.관.정이 협업하여 당초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석유 수출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선도국가로 변모

전 세계가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다. 본 의원도 2022년 12월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만들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서구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UAE가 제로카본시티를 표방하며 만든 환경친화도시인 마스다르시티의 방문은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일이었다. 마스다르시티는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100% 신재생 에너지 도시로 태양광 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더운 두바이 환경을 고려하여 빌딩과 빌딩 사이 간격을 좁게 만들어 그늘이 생기게 하고 바람이 도시 안가운데로 모일 수 있게 하여 건물의 냉방비를 절감할 수 있게 설계 하였다. 광당 한가운데 ‘윈드타워’가 도심속 선풍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건물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설계 되었고, 사용된 자재도 저탄소 시멘트와 재활용 알루미늄 이며 도심내에 운용되는 차량은 모두 전기 버스나 친환경차량이라고 한다. 물론 마스다르시티는 아직까지 최초의 야심찬 계획만큼 도시의 성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았다. 일부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탄소제로 도시로 이주해 와 살기에는 이 녹색 도시가 주는 매력이 충분치 못한 것 같았다. 되돌아 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마스다르시티의 주요 에너지 원인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계 최고 높이의 집광판을 갖춘 두바이 태양광 발전소인 ‘모하마드 빈라시드 알막툼 솔라파크’는 발전용량이 800MW급이며, 2030년 최종 완성되면 단일 태양광 발전단지 중 세계최대의 발전규모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이 솔라파크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두바이 전체 사용 전력의 25~30%를 공급하게 되고 두바이는 2050년까지 75%의 비화석 연료를 통한 전력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기름이 평평나는 산유국에서 이렇게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 지금 본의원의 지역구에는 수도권 매립지, 광역소각장, 각종 민간 소각장 그리고 다수의 복합화력발전소가 몰려있고, 매일 전국 최고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서구 소재 발전소도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청청에너지를 위한 노력, 현재 화석기반 발전소들의 방지시설 관리와 투자 그리고 향후 운영 로드맵이 주민들과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하여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환경적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들에게 언젠가는 제로탄소,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기술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서구를 선물해 줘야하는 책임이 있다.

▶ 창의와 혁신 그리고 우리의 숙제

두바이몰 앞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이 치솟는 음악분수를 보면서 청라호수공원의 음악분수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버즈칼리파, 두바이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두바이몰 그리고 세계 3대 분수쇼를 볼수 있는 두바이 음악분수가 나란히 위치해 있다. 두바이몰에 들어서서 식당을 하나 골라서 들어가게 되면, 음악분수를 보면서 식사나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무료로 산책하며 분수쇼를 볼 수도 있다. 분수쇼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버즈칼리파도 함께 조망이 가능하다. 환상적인 레이저 쇼와 음악분수 공연이 청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청라음악분수 자리에서 청라시티타워도 조망이 가능하고, 청라시티타워 및 함께 들어설 상업시설에서도 분수쇼를 볼 수 있다. 음악분수의 규모를 좀 더 키우면, 지역의 특색있는 이벤트로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향후 청라시티타워, 상업시설, 음악분수, 청라호수공원이 하나의 융합된 관광벨트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 관광, 경제적 인프라를 영리하게 구축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에게 남은 숙제가 아닐까 한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 이번 의정연수를 함께 다녀온 의원님들을 포함한 서구의회의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더 기대되는 그리고 희망있는 서구를 만들어 가고 싶다.